



## ■ 주제 사라마구의 삶과 작품세계

김 용 재

“위대한 작가가 사라졌다.” 지난 6월 18일 사라마구의 사망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직후 포르투갈 신문을 장식한 문구이다. 거대한 상상력으로 인간의 정체성 탐구라는 이정표를 씬 없이 우리에게 세워 주던 주제 사라마구(José Saramago). 그가 87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예수 복음』에 이어 가톨릭과 또 다시 불편한 관계를 야기한 소설 『카인』은 사라마구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았다. 사후 한줌의 재로 변한 사라마구는 2007년 자신의 이름을 따 설립한 주제 사라마구 재단(Fundação José Saramago)의 리스본 본부 건물 앞에 마련된 묘소에 안장될 예정이다. 본인이 원하던 대로 고향 아진냐가(Azinhaga)에서 옮겨 심은 백 년도 더 된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는 영원히 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sup>1)</sup>” 들을 대신해 사라마구의 시선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갈망하던 사라마구의

1) 『눈먼 자들의 도시』, 359쪽.

삶과 글은 인간성이 점점 말살되어 가고 있는 현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추모열기가 뜨거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필자 또한 《트랜스라틴》의 지면을 통해 사라마구를 추모하고자 한다.

## 늦깎이 작가로 문단에 등단하다

포르투갈어권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는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서 1980년 예순에 가까운 나이에 발표한 『바닥에서 일어서서』로 뒤늦게 주목을 받은 대기만성형 작가다. 스물다섯 살이던 1947년 『죄악의 땅』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사라마구는 이후 문학가보다는 용접공, 공무원, 편집자, 번역가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인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20년이 지난 1966년 시집 『가능한 시』로 다시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나 또 다시 인정받지 못한 채 평론가와 신문기자로서의 삶을 이어간다. 사라마구 문학이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된 것은 『바닥에서 일어서서』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부터 1975년까지라는 시대적 배경하에 대지주와 소작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포르투갈 남부 알렌테주(Alentejo) 지방의 가난한 농민들을 다룬 이야기다. 사라마구는 억압에 저항하는 인간, 소외되고 잊힌 사회 계층을 심층 깊게 분석하고 있다. 이후 사라마구의 ‘작업 공간’인 역사, 무엇보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재해석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감추어진 역사, 누락된 역사는 사라마구 문학의 기반이 되어 ‘환상역사소설’이란 새로운 장르로 탈바꿈한다. 그 시작은 1982년 발표된 『수도원의 비망록』이다.



주제 사라마구

등장인물인 ‘발타자르와 블리문다’ 라는 이름으로 번역되면서 사라마구에게 국제적 명성을 안겨 준 이 작품은 18세기 절대왕정시대 포르투갈의 최대 공사였던 마프라(Mafra) 수도원 건축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 바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민중사관적 경향의 소설이다. 사라마구는 여기서 역사와 픽션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담론을 통해 과거를 재생활 뿐 아니라, 현재의 시각을 통해 과거를 의식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석하며, 억압받고 역사 속에 잊혀 가는 피지배 계층을 부활하고 있다. 사라마구에게 ‘역사’ 는 단순한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장치다. 다시 말해 사라마구는 우리에게 전해진 역사, 즉 과거를 전해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백을 찾아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 즉 언제나 승자와 통치자의 언어로만 말하는 특권적 중심 담론이 아니라 부조리하고 모순된 사회에 저항하는 개인이나 소외되고 무시된 사회 계층을 다루는 주변 담론이 사라마구 문학의 기본 틀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국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기 시작한 이 마술적 사실주의 소설 이후 사라마구는 『히카르두 헤이스의 사망 연도』 (1984), 『돌뿔목』 (1986), 『리스본 쟁탈전』 (1989), 『예수 복음』 (1991), 『눈먼 자들의 도시』 (1995), 『모든 이름들』 (1997) 등 희박해져 가는 조국 포르투갈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우화적 문체로 그려낸 작품들을 계속 발표하며, 보르헤스,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더불어 마술적 사실주의의 ‘살아 있는 교과서’ 로 불리게 된다. 1995년 ‘카몽이스(Camões) 상’ 을<sup>2)</sup> 수상한 사라마구는 1998년 노벨문학상을 수

2) 포르투갈, 브라질, 앙골라 등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작가들 중 가장 뛰어난 업적

상함으로써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사라마구의 작업은 쉬 없었다. 『동굴』(2001), 『도플갱어』(2002), 『눈뜬 자들의 도시』(2004), 『죽음의 중지』(2005), 『돈 지오반니와 돌아온 탕자』(2005), 『작은 기억들』(2006), 『코끼리의 여행』(2008), 『카인』(2009) 등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해 왔다.

### 거대한 상상력으로 포르투갈의 정체성을 설파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라마구는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재개한 1980년대, 포르투갈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74혁명 이전의 20세기 포르투갈을 그리고 있는 『바다에서 일어서서』부터 절대주의 왕정시대인 18세기(『수도원의 비망록』), 포르투갈 국가 형성기인 중세(『리스본 쟁탈전』), 20세기 중반의 살라자르(Salazar) 독재정권 시기(『히카르두 헤이스의 사망년도』), 20세기 후반의 포르투갈의 EC 가입(『돌 뗏목』) 등 대표적인 포르투갈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발표하며 ‘역사’와 ‘환상’이 중첩되고 있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환상’은 사라마구에게 역사 텍스트를 회복하고 설명하는 장치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돌 뗏목』이다.

『돌 뗏목』은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세 작품과 달리 포르투갈이 속한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대서양에 표류한다는 초현실적인 설정에서 출발한다.

---

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문학상으로, 페소아(F. Pessoa)와 더불어 포르투갈 최고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16세기 시인 카몽이스(Luís Vaz de Camões)의 이름을 따다.

---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처럼 이베리아 반도를 여행한다는 설정을 통해 사라마구는 “브라질과 아프리카에 닳을 내리는 거대한 뗏목” 과 같은 위대하고 화려한 과거를 조명하면서, 유럽연합의 틸바구니에서 신음하는 현재의 포르투갈 국민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과거의 역사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알레고리를 바탕으로 현실과 환상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유럽 통합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역사성과 정체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상실감과 왜소함, 과거의 화려하던 역사와 현재의 보잘것없는 역사로 인해 야기된 혼란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마구는 끊어 읽을 수 없는 문장부호가 파괴된 난해한 문장으로 “우리는 단순한 뗏목일 뿐이다” 라고 외치며 EU가입 이후의 포르투갈의 운명, 이베리아 반도의 운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는지 모른다.

사라마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포르투갈과 포르투갈 국민들의 과거의 삶의 기록인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데에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다. 그중에서 20세기 들어 포르투갈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가장 큰 이유다. 1974년 혁명으로 인한 40년에 걸친 살라자르 독재정권의 갑작스런 종결, 이로 인한 아프리카 식민지 상실과 식민지에 거주하던 포르투갈인의 대규모 귀국, 이에 따른 실업과 주택문제, 사회개방과 외국문물의 유입 등 봇물같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수많은 문제들로 20세기 후반의 포르투갈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 포르투갈의 EC가입은 이베리아 반도에 속한 유럽인으로서 ‘왜소한 포르투갈’, 동시에 16세기 해양진출 결과로 타 대륙의 문화를 수용하던 ‘범세계적인 포르투갈’ 이라는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국 사라마구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물음을 던지게 했고, 역사를 통해 포르투갈이 직면하게 된

변화를 재조명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의 작업과 연결되기에 이른다.

### 인간정체성 탐구를 위한 이정표를 세우다

『돌 뗏목』과 『리스본 쟁탈전』을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역사에 환상이라는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역사를 픽션화해 온 사라마구의 작업은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한다. 그 시작은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 사회적·종교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예수의 복음』이다. 인간이 된 예수의 욕망과 갈등을 폭로하며, 종교와 사회제도 속에 숨겨진 권위의 허상과 폭력성을 지적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사라마구는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사라마구의 관심이 포르투갈이라는 시공간을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현대사회의 인간으로 변화했음을 암시한다. 이후의 작품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의 눈이 멀어 혼란에 빠진 사회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 『눈먼 자들의 도시』, 탐정소설을 연상하게 하는 분위기로 한 말단 공무원이 기존 규칙을 깨뜨리려다 비극적 종말로 끝나는 『모든 이름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현대에 되살린 『동굴』, 불안한 정체성을 다룬 『도플갱어』, 『눈먼 자들의 도시』의 속편으로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잔인함을 비판하고 있는 『눈뜬 자들의 도시』,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죽음의 중지』 등 사라마구는 가치와 윤리를 상실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생각이 확연히 드러나는 소설을 연이어 발표한다. 그중에서도 최근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눈먼 자들의 도시』는 이를 가장





노벨상을 수상하는 주제 사라마구. 1998.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실명이 전염병처럼 도시 전체로 퍼져 간다는 환상적 설정을 바탕으로 사회체제의 붕괴와 야수로 변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폭력, 공포, 탐욕, 고독, 사랑 등 인간의 내면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여기서 실명은 보기를 거부하는, 아니 볼 줄 모르는 현대인에 대한 우화, 즉 도덕적 교훈으로



나타난다. 사라마구가 우화로써 우리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은 현대인이 처한 상황, 다시 말해 소외받고, 권위와 억압에 억눌리고 있는 개인의 저항과 현대 물질사회에서 파괴되어 가는 현대인의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무지, 자본주의 사회가 보여 주는 폭력과 비인간성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야만적인 폭력에 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은 문학에서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사라마구는 우화를 사용하면서, ‘눈이 있다면 쳐다보라’고 깨우쳐 주고 있다.

사라마구의 이후 작품을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 미묘하고 복잡해서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묘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마구는 현실과 환상의 중첩, 즉 환상을 통한 허구적 창조와 우화화를 동원하여 현실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새로운 미적 프로젝트가 드러난 작품들을 통해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는 한편 진정한 인간적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다. 비록 이후의 작품에서 현대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적이고 심지어 비관적이기까지 한 사라마구의 시각이 두드러지지만, 그 이면에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 의지는 지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로 향해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라마구의 작품세계는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한 ‘우의적(寓意的) 기법을 통한 현대인의 잃어버린 정체성과 유토피아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토대는 자유분방한 상상력이고, 상상력은 환상이라는 장치를 바탕으로 더욱 큰 힘을 얻고 있다. 사라마구는 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뿐만 아니

라 인간 내부 세계의 여행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조화를 시도하는 마술적 사실주의이란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했다. 역사와 환상, 현실과 허구라는 두 개의 장치를 통해 현대인의 의문을 파헤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울보기’를 계속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한림원은 1998년 노벨상 수상을 결정하며 사라마구의 작품을 “상상력과 아이러니가 풍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눈을 속이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온 작가”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실제 사라마구의 작품은 그가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이 메타포를 위해 사라마구는 역사와 신화, 그리고 환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전 세계 독자들뿐 아니라, 많은 현대 작가들에게 살아 있는 문학적정신의 귀감, 진정한 삶의 스승으로 여겨졌던 사라마구는 황량하고 거친 공간,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부는 스페인의 란사로테(Lanzarote) 섬에서 87세의 생을 마감했다. 그렇지만 진정한 휴머니스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라마구의 의문은 남아 있는 듯하다. 그의 육신은 떠났지만 “그 의지는 하늘의 별로 향해 올라가지 않았다. 지상의 것이었고, 블리문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sup>3)</sup> . 그래서인지 “눈이 보이면 보라. 볼 수 있으면 관찰하라”고 외치고 있는 사라마구의 메시지가 계속 귓가에 남아 있는 듯하다. ■

---

김용재 - 부산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

3) 『수도원의 비망록』의 마지막 구절로, 소설의 배경이 된 마프라 지역의 돌로 만든 사라마구 묘석에 새길 비문이다.

---